

바르셀로나, 보행자 안전 해치는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을 위해 조례 개정

https://ajuntament.barcelona.cat/ecologiaurbana/en/noticia/la-nova-ordenanca-de-circulacio-entra-en-vigor-el-proper-1-de-febrer-2_1477789

<https://www.barcelona.cat/endrecembarcelona/en/news/new-enforcement-campaign-for-cyclists-and-personal-mobility-vehicles-1482934>

<https://www.barcelona.cat/mobilitat/ca/mobilitat-segura>



바르셀로나의 PM 이용자와 보행자들

출처: 바르셀로나시 홈페이지. <https://www.barcelona.cat/mobilitat/en/safe-mobility> (검색일: 2025.2.28.)

이제 바르셀로나에서는 보행로에서 개인형 이동수단(Personal Mobility: PM)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. 시는 PM의 사용 규정 등을 골자로 교통, 보행자 및 차량 조례(Ordenança de circulació, vianants i vehicles: OCVV) *를 지난해 11월 개정하였으며, 올해 2월부터 시행하였다.

시는 바르셀로나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시민 가운데 90% 이상이 오토바이 운전자, 보행자, 자전거 운전자, 전기 스쿠터 운전자에 속한 다면서, 2030년까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표에 기여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여 도시 내 이동 수단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.

개정된 OCVV는 PM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다. PM을 이용할 때 헬멧을 착용할 것과 PM에 전조등, 후미등의 장착이 의무화되었다. 속도 제한이 30km/h 이하인 도로, 자전거 도로에서만 주행할 수 있으며, 최대 속도는 25km/h로 제한되는데 자전거 도로에서는 10km/h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. 또한 보행로에서 자전거와 PM의 주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, 위반 시 최대 500유로(약 75만 원)의 벌금이 부과된다. 다만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동반한 성인, 14세 미만의 어린이,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 어린이를 동반한 성인은 보행로 주행이 가능하다.

바르셀로나 경찰은 개정된 OCVV를 통해 '2030년 도로 안전 전략(Road Safety Strategy 2030)'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망자 및 중상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 2050년까지 무사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.

이외에도 바르셀로나시는 향후 몇 년 동안 도시 이동성을 관리해야 하는 행동 방향을 정의하는 계획수단으로 '2024년 도시 이동성 계획(Pla de mobilitat urbana 2024)' **을 수립하였으며, 이를 달성하기 위해 총 62개의 행동 방침을 명시하고 300개 이상의 구체적인 조치를 실행할 예정이다.

* 주 규제 프레임워크에 따라 바르셀로나의 교통 규제를 수립하는 규정

** 사람과 물품의 이동성 요구 분야에서 해답을 제공하는 네 가지 주요 과제(이동권 보장,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 보장, 경제 및 상업 활동 회복에 기여, 기후 위기에 맞서고 대기질을 개선)